



PASSION WEEK

2020년 고난주간 묵상집

‘ 가
가 ’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갈라디아서 6:14)”



고난주간의 의미

예수님이 사신 33년은 역사의 중심이며 전환점이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더 중요한 기간은 공생애 3년 3개월이었을 것이고 다시 이 기간 중에 더욱 중요한 기간을 말한다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 1주일간의 기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간에 해당 하는 종려주일(Palm Sunday)로부터 시작해서 부활주일(Easter day) 전까지 한 주간을 특별히 거룩한 주간 (Holy Week) 혹은 고난주간 (Passion Week) 으로 지킵니다.

이 기간동안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고난과 죽음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어떻게 신앙적으로 살 것인가를 생각하며 지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신 주간을 보내면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과,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의 의미를 깊이 되새김으로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기 위해 고난주간 묵상집을 마련했습니다.

고난 주간 동안 이 말씀들을 통해서 2000년 전에 주님께서 가셨던 마지막 일주일들 함께 여행하면서, 예수님의 크신 은혜를 다시 기억함과 더불어 이 땅에서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나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러져야 할 것인지에 대해 새롭게 다짐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고난주간 묵상(예수님의 행적 및 사건들)

종려주일

예루살렘 입성

마 21:1-9, 막 11:1-10, 눅 19:28-44, 요 12:12-19

월요일

권위의 날

성전 청결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

마 21:12-13, 19-22

막 11:15-25

눅 19:45-48

화요일

변론의 날

종교지도자들과 논쟁

마 21:23-26:16

막 11:27-14:11

눅 20:1-22:6

요 12:20-50

수요일

침묵의 날

논쟁 후 베다니에서 침묵과 명상

향유를 부은 여인

마 26:1-16

막 14:1-11

눅 22:1-6

목요일

고민의 날

세족 목요일, 최후의 만찬, 겐세마네 기도

마 26:17-30

막 14:22-25

눅 22:14-20

요 13:1-17

성금요일

수난의 날

십자가에서의 고난과 죽음

마 27:32-44

눅 23:26-43

요 19:17-27

토요일

비에의 날

무덤에 계신 날

마 27:57-66

막 15:42-47

눅 23:50-56

요 19:38-42



제 1일. 승리의 입성 (종려주일)

마 21:1-11

성경

(마21:1-11)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 산 뱃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메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겹옷을 그 위에 얹으매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겹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 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참고: 막 11:1-10, 눅 19:28-44, 요 12:12-19)

말씀묵상

부활절 전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주일로 예수님께서 죽음의 십자가가 기다리는 것을 아시면서도 죄인을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성에서 올라가신 날입니다.

생애의 마지막 순간을 보낼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며 따라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은 사람들에게 더욱 더 널리 전파되고 있었습니다.

이때 군중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성으로 올라가시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정치적 해방과 경제적 번영을 가져다 줄 줄 알고 " 호산나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뜻) 다윗의 왕이여"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겸손하신 모습으로 나귀새끼를 타시고 죽음의 행진을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는 죽기까지 순종하신 주님 앞에 겸손의 의미를 되새기고자 합니다. 나의 작은 겸손과 희생으로 주님을 높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양심의 소리를 외면한 채 이기적으로 살아오시지는 않았습니까?

군중들의 외침 가운데 나귀새끼 타시고 침묵하신 채 예루살렘 성문에 들어서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의 그 눈빛을 바라보십시오.

적용

- 1)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루, 일주일, 일년 계획표 짜기
- 2) 나의 이기적인 모습 적어보기

기도제목

- 1)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주소서
- 2) 벋바게의 어린 나귀처럼 일생을 주님을 위해 쓰임 받게 하소서



제 2일. 성전을 깨끗게 하심,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심

마 21:12-22

성경

(마21:12-22)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엮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데도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 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 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 가에서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 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참고: 막 11:15-25, 눅 19:45-48)

말씀묵상

승리의 예루살렘입성을 하신 예수님은 베다니에서 하루를 지내셨습니다. 이른 아침 성으로 다시 들어오실 때 시장기를 느끼신 주님은 옆에 있는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열매는 없고 잎만 무성한 나무를 보신 예수님은 이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이는 무화과로 상징되던 이스라엘의 열매 없음을 상징하며, 그에 따른 심판을 예고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면서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을 이용해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는 자들에게 잎만 무성한 나무처럼 저주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찾아 나와 자신을 낮추며 하나님을 높이는 자를 찾으십니다. 그리고 교회는 기도하는 곳입니다. 기도처럼 믿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러기에 나를 부인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 하는 기도는 희생이며 헌신입니다. 교회를 통해 주시는 은혜는 그 무엇으로도 살 수 없습니다. 오직 나를 낮추는 기도로만 얻을 수 있습니다.

적용

- 1) 오늘 우리 마음과 교회를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보신다면 무엇을 느끼실까 적어 보기
- 2) 나의 신앙이 저주받은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와 같아서 열매 없는 그리스도 인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 지 적어 보기
- 3) 성전을 참으로 기도하고 예배하는 집으로 만들기 위해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할까 적어 보기

기도제목

- 1)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언제나 드릴 수 있게 하소서
- 2) 내속에 속되고 누추한 것들이 제거되게 하소서



제 3일. 예수님의 변론

마22: 15-22

화요일

성경

(마22:15-22)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울 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옳지 아니하니이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 가니라

(참고: 마 21:23-26:16, 막 11:27-14:11, 눅 20:1-22:6, 요 12:20-50)

말씀묵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헤롯당원들은 교리적인 차이로 인해 서로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모해하기 위해 평소에 멀리 지내던 감정을 버리고 힘을 모아 예수님께 질문 공세를 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공을 내세우기 위해 선한 일 조차 남과 같이 하기를 꺼려합니다. 그러나 악을 위해서는 서로가 힘을 합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달라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선을 이루는데 함께 참여하도록 해야 합니다. 나만을 내세우기 위한 선행은 교만이며 위선입니다. 또한 성도는 죄악을 이기기 위해서도 서로 힘을 모아야 합니다. 누가 시험에 빠졌을 때 서로 돌아보아 격려하여 시험을 이기도록 해야 합니다.

질문을 받으신 예수님은 저들이 입을 다시 열지 못할 대답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웃으로부터 많은 질문을 받습니다. 여기에 대답할 말씀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그 대답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야 대적으로부터 이길 수 있습니다. 성경은 성도의 유일한 공격용 무기입니다. 말씀의 칼날을 갈지 않고서는 악한 마귀 권세를 물리칠 수 없습니다.

적용

- 1) 그 동안 불편한 관계로 지낸 이웃과 화해하기
- 2) 매일 정한 분량대로 성경 읽기

기도제목

- 1) 형제 자매와 먼저 화목하게 하소서
- 2) 성령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소서
- 3) 삶 속에서 주님을 시험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제 4일. 예수님을 죽이려는 계획

마26: 1-16

성경

(마26:1-16)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 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흥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민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아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며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 때에 열둘 중의 하나인 가롯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삼십을 달아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삼십을 달아 주거늘 그가 그 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참고/ 막 14:1-11, 눅 22:1-6)

말씀묵상

수요일에 주님의 행적은 조용히 쉬신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쉬시는 동안에도 예수님을 대적하는 세력은 쉬지도 않고 예수님을 체포할 흥계를 꾸미고 있습니다. 그것도 제자인 가롯유다까지 합세해서 말입니다. 악은 이렇게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밤도 없이 열심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안고 사는 우리는 어느 정도의 열심이 있습니까? 악의 세력보다 더 열심이 없다면 저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는 너무 바쁘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나의 신앙을 되돌아 볼 시간조차 때로는 갖지 못합니다. 그런데 바쁜 시간이 거의 육신을 위한 것이지 영혼을 위한 분주함은 별로 없었습니다. 이제 조용하게 하나님과 단 둘이서 만나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거기서 주님의 깊은 사랑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에도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릴 계획을 밤새워가며 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위해 옥합을 깨트린 마리아의 헌신은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향유는 귀하고 값이 비싸서 주로 왕과 같은 고귀한 신분에게 바쳐지던 것으로써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있었습니다.(일반 노동자 한 사람이 1년간 벌어들이는 소득) 여인이 자기가 가장 귀하게 여기던 것을 헌신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위해 사용한 것입니다. 나의 옥합은 무엇입니까?

기꺼이 주님을 위해 깨트릴 수 있습니까?

적용

- 1) 내가 귀히 여기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것을 적어보자 (시간,재능,재물...)
- 2) 신앙생활에 방해되는 것들을 적어보자

기도제목

- 1)나의 옥합을 주님을 위해 깨트릴 수 있는 믿음을 주소서



제 5일. 발을 씻기시고 마지막 만찬을 나누심 겻세마네 기도

마 26:26-29, 요 13:13-15, 눅 22:42-44

성경

(마26:26-29)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요13:13-15)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눅 22:42-44)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참고: 막 14:22-25, 눅 22:14-20, 요 13:1-17)

말씀묵상

주님의 죽음을 하루 앞둔 날입니다. 누구나 죽음이 임박한 사람은 떨림과 괴로움에 잡혀 안절부절 못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밤에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나누고자 하셨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서는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대야에 물을 떠와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고 수건으로 닦아 주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행동은 종으로서 봉사하는 모습을 본으로 보여주신 것이며, 오늘 제자로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들에게도 그같이 행하라는 요청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겿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깨어 함께 기도하자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잠만 자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오늘도 교회의 지체인 우리들 모두가 예수님의 몸과 피를 마시고 깨어 있어 당신을 본받고 증언 할 것을 원하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의미를 몰랐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과 피를 함께 나눈 한 형제 한 자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형제를 멸시하고 미워하지는 않았나요?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주님의 살과 피를 마시지 않고는 결코 승리의 삶을 살수 없습니다.

당신의 몸속에는 주님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의 피 흘리심의 은혜에 잠겨봅시다.

적용

- 1) 가족이나 주변의 도움이 필요한 형제 자매를 섬기는 일을 해보자
- 2) 교회에서 내가 섬길 수 있는 일을 한가지 이상 찾아 보자
- 3) 나의 작은 무관심으로 남이 크게 고통 당하는 일이 무엇인지 찾아 적어보자

기도제목

- 1)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내 삶가운데 이루어 지게 하소서
- 2) 제자들처럼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것이 아니라, 깨어서 기도하게 하소서



제 6일. 예수님이 운명하시다 마27:45-50

성경

(마 27:45-50) 제육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구시까지 계속되더니 제구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의 한 사람이 곧 달려 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 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참고: 눅 23:26-43, 요 19:17-27)

말씀묵상

예수님께서 결국 죽으셨습니다. 주님이 지시고 마귀가 이기는 것 같았습니다. 더구나 자기만은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장담하던 베드로까지의 배반은 더욱 큰 실패로 보였습니다. 이처럼 세상은 강해 보이고 교회는 약해 보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인정도 하지 않고 오히려 무시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화려하고 강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흠에 묻었던 자들은 흠이 되었고 흠에 묻혔던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 계셔서 역사 하십니다. 세상은 강해 보이나 약합니다. 그들은 영원한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성도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히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삶의 현장에서 묻고 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묻는 자는 자기가 묻히게 됩니다. 영원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살아나신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외치신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외침은 우리가 죄로 인해 지옥형벌을 받을 때 외쳐야 할 외침을 대신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는 마지막 외침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주님이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대신 이루심으로 인간의 구원을 완성하셨음을 보여주시는 승리의 외침입니다.

적용

- 1)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생각하며 금식해 보자
- 2) TV, 인터넷 등 세상문화를 하룻 동안 멀리하고 지내보자

기도제목

- 1)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복음적인 삶을 살게 하소서
- 2)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사하신 주님, 우리도 주님처럼 용서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제 7일. 무덤속에 계신 예수님 마27:62-66

성경

(마 27:62-66)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 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참고: 막 15:42-47, 눅 23:50-56, 요 19:38-42)

말씀묵상

숨이 끊긴 예수님은 고요히 무덤 속에 누워 계십니다. 오히려 죽인 자들은 밤새 잠도 못 자며 지키고 섰습니다. 승리자로 자처했던 자들이 두려워 잠 못 이루는 불면의 밤이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들은 피흘리신 예수님을 현장에서 보았지만, 주님의 죽음을 자신을 위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저들에게는 평안이 없습니다. 평안하지 않으면 잠도 잘 수 없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예수님은 죽으신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 수 있기에 평안히 누워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영원한 생명이 있으며 평안합니다. 일시적인 걱정은 있어도 곧 이길 수 있고 다시금 평안이 있게 됩니다.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다릅니다. (요 14:27)

부활의 소망을 가진 성도는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거기서 영원한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권세자들은 오히려 불안해 밤새 무덤을 지킵니다. 살아나신 주님과 함께 평안함을 누리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나는 지금 이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두려움가운데 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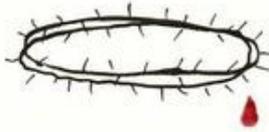
적용

- 1) 무덤속에 장사지내야 할 내 죄의 목록을 적어보자
- 2) 무덤속의 주님을 묵상하며 가족과 함께 나눠보자

기도제목

- 1) 나의 죄를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오니 나를 용서 하소서
- 2)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나 한사람 만이 아님을 알기에 이 주님을 세상에 전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 3) 두려움이 아니라 나의 죄를 대속하신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도록 하여 주소서





다 이 르 었 다

Telestai

요한복음 19:30



해외한인장로교(KPCA)
새소망교회
New Hope Church